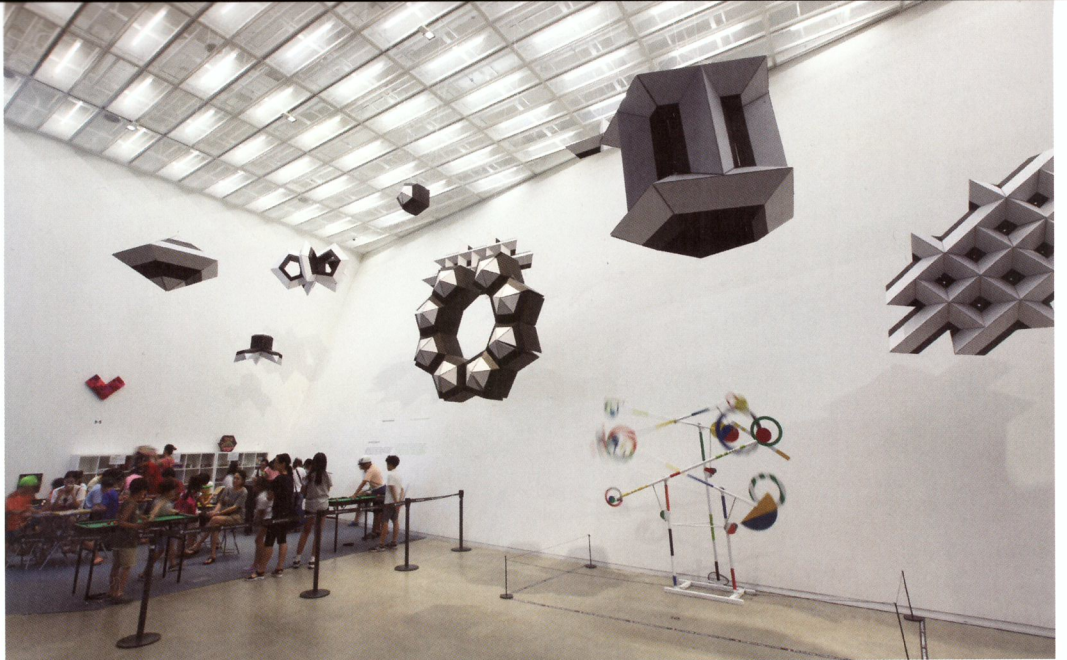


PLAYART_게임으로 읽는 미술
4.28~8.2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
 카드, 미로, 보드게임 등의 놀이와 미디어작업을 통해 예술과 게임의 관계를 알아보는 전시다. 관객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에서 예술적 의미를 찾아냈다. 18명의 국내 작가가 참여했으며 만레이가 1920년 디자인한 체스판과 체스도 함께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.



이재욱 개인전
8.5~9.3 스페이스 오뉴월
 스페인의 레메디오스 바로와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의 교차점에 착안해 작업을 선보인 작가의 이번 전시 타이틀은 '리듬, 색, 새소리 연구'로 명명됐다. 두 예술가의 초현실주의 수학, 물리학 등 비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에 영향받은 작가는 작업 생산 이외에 지식 생산자로서 작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전달한다.



윤성지 개인전
8.11~31 탈영역 우정국
 '신자유주의'에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작가의 이번 전시는 '신자유주의, 빛은 없다'라는 타이틀을 달았다. 인터넷, 모바일 폰,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공허하고 분절적인 소통의 모습을 기호와 색상으로 구현한 작가다. 연장선인 이번 전시에서는 비물질적 환경과 그것에 대응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초점을 맞췄다.

